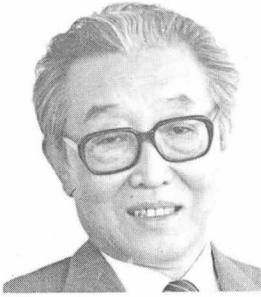


발상과 인식의 전환기



조 덕 송
〈언론인〉

「지구촌」이란 말이 귀에 설지 않게 되어가고 있는 오늘이다. 지구 6대주(六大州)에는 50억의 인구가 생존하고 있고, 1백 70여개 독립국가가 각자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88서울 올림픽의 주제가 「손에 손잡고」였지만 이렇게 많은 인구와 나라가 존재하면서, 이들은 날로 가까워져가고 있고, 그 가까워짐으로 해서 지구는 좁아졌다고 하여 「지구촌」이란 새낱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다.

그 배경의 1차적 요인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향상을 꼽을 수 있다. 우리는 TV라는 문명기구를 통해 모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안방에 앉아서 거의 즉각적으로 그리고 현장성(現場性)까지 합쳐서 보고, 듣고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범(汎) 세계적 공유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곧 대화의 제한도 철폐해 주고 있다. 필자는 최근 중국을 여행하였지만 서안(西安)에서 서울 집에 전화기의 다이얼을 돌리는 것만으로 양질감도(良質感度)의 통화를 할 수 있었다. 통신수단의 시스템도 지구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는 요인의 하나인 것이다.

교통수단의 발전도 동일하다. 각 나라들이 점차 문호를 열어 항공기와 선박등의 상호 기착(寄着)을 허용함으로써 항로(航路)의 거리와 시간을 단축시켜가고 있고, 특히 항공기의 고속화가 일진월보(日進月步)하여

21세기에는 서울과 뉴욕간을 2시간이면 비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잡담도 나오고 있는 터여서 그렇게 되면 온 지구가 바야흐로 「1일생활권」에 드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구촌」이란 말이 나오게 된 좁아져가고 있는 지구의 배경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훨씬 비중 높은 국제정치적 환경변화 요인이 보다 큰 작용을 하고 있다.

미국 카터대통령의 안보담당 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는 『20세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치구조의 등장으로 개막됐다가, 그것의 사멸(死滅)로 폐막되는 세기가 될 것』이라고 그의 저술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 브레진스키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구라파의 사정이 이를 웅변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주의」 등, 제아무리 많은 수사(修辭)로 장식하고 호도(糊塗)한다 해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치구조는 놀랍게도 그 종주국(宗主國)인 소련에서 붕괴돼가고 있음을 보고 있다.

서방측 제도를 본딴 대통령제 신설, 모든 유권자의 자유비밀투표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도입, 공산당만이 인민과 국가의 전위로서 존재한다는 1당독재체제 규정의 헌법조항 개정 등, 중요한 몇가지만 들어도 놀라운

그 변모상(變貌相)을 역력히 알 수 있다. 소련보다도 앞선 동구라파 다른 나라들의 급격한 변혁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서구라파에서, 집권당은 아니었으나 가장 막강한 정치세력이었던 이탈리아공산당이 스스로의 「죽음=해체」를 선언하고 자멸(自滅)의 길을 택했다. 서구라파의 공산당은 벌써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프로레타리아 폭력혁명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포기하고 의회(議會)주의를 통한 집권 노선을 명백히 밝혀왔다. 그럼으로써 폭력을 포기한 공산주의란 데서 서구공산주의를 「유러코뮤니즘」이라고 정통공산주의와 구별해서 불리었다.

이제는 폭력혁명을 포기하고 의회주의 정치노선을 택했던 유러코뮤니즘 정당들마저도 공산주의란 용어가 들어가는 한 그 존립 가치와 근거를 잃고, 이탈리아공산당의 자멸을 본따라 스스로를 장송(葬送)하는 도미노 현상이 잇따를 것임이 불을 보듯 환하다. 이웃 일본의 공산당 또한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구촌적인, 또한 세계적인 인류사(人類史)의 변혁물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는 브레진스키의 말대로 공산주의 정치구조의 사멸과정이고, 다른 또 하나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대두 현상이다. 이 새로운 민족주의의 대두 또한 이제까지의 공산권에서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 있으니, 역사란 참으로 아이러니칼한 메카니즘을 지니고 있다 하겠

다.

지금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민족주의와 관련해서 대표적 케이스로 안고 있는 고민거리는 「독립」을 선언한 리투아니아민족국가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리투아니아민족국가에 대한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역시 독립 결의를 밝힌 발트 3개국의 다른 두 나라, 곧 라트비아 민족과 에스토니아 민족들에게 어떤 불똥이 튕겨갈지 모를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것이 동·서독의 통일 접근 노력과 그 성취 가능성이다.

동·서독은 1·2차세계대전으로 인류에게 처참한 비극을 안겨준 전쟁범죄국가로서, 1945년의 이른바 알타 체제에 의해 반영구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게 묶여온 민족이고 나라이다. 이러한 동·서독이 동구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구조의 변혁과 함께 소위 「2+4회담」을 통해 독립을 성취하려 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민족자결권을 전제할 때 비로소 온전한 민족주의의 가치를 발휘한다. 지금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와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 생리는 알대로 알고 있다. 문제는 한국민족의 진정한 민족주의 발흥을 위해, 그리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국민모두가 발상(發想)과 인식의 일대전환이 필요한 중대한 때를 우리는 맞고 있다. ☉

민족주의는 민족자결권을 전제할 때 비로소 온전한 민족주의 가치를 발휘한다. 한국민족의 진정한 민족주의 발흥을 위해, 그리고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발상과 인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